

각 총림 올유년 동안거 해제법어(요약)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

유언 무언의 차별을 벗어나 대의를...

법전 스님(조계종 중정)

풍혈연소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용(用)이 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체(體)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체와 용으로 부터 모두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하였습니 다.



“항상 강남의 3월 풍경을 생각하니 새가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로우리라”
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동안거를 마치는 이때 좀 주고 받았을 선문답입니다. 안거는 무언(無言)입니다. 해제는 유언(有言)입니다. 침묵인 무언은 체요 법을 전하는 유언은 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체와 용이라는 차별경계마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즉 유언 무언의 차별을 벗

어나 불법의 대의를 제시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공안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공부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강남가경성합여지
(江南佳景誠合如之)
강남의 아름다운 경치가 진실로 그러해도

천재관광첨인성조
(千載觀光添人性疎)
천년의 구경거리에 조금첨만 보낸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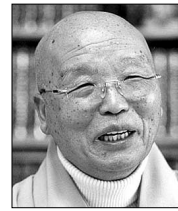
당성불이래년신조
(當成不爾來年新條)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새 가지가 돌더라도

뇌란춘풍졸미휴혜
(惱亂春風卒未休)
봄바람에 어지럽기는 끝이 없으리다.

마음을 물처럼 고요히

보성 스님(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오늘 해제하여 여러분들이 새간을 두루 돌아다니다 보면
울으니 그르니 고우니 미우니 놀리고 험뜯고 기리는 온갖 폐단이 간곳마다 번거로이 생길 것이다.
바로 이럴 때는 어떻게 이를 무사히 면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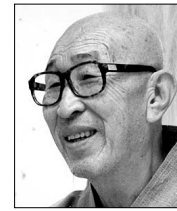
많이 애쓸 것 없이 다만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않으면 꿈이 없을 것이고, 꿈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세간의 일체 고통이 모두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니, 그래서 말하기를 “꿈속에서는 시끄럽다가 깨고 나면 고요하여 일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일난풍화태평춘(日暖風和太平春)
따뜻한 바람 부는 태평스런 봄날에
남북만행무사인(南北萬行無事人)
남북으로 만행하는 일없는 사람이여!
도로유재잔춘설(道路猶在殘春雪)
가는 길엔 아직도 잔설이 남았으니
지행이보불이신(只行移步不移身)
걸음은 옮기어도 몸은 가지 말지어다.

삼동안거 흔적 싹 쓸어라

수산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오늘은 삼동안거(三冬安거) 해제일이다.
무엇을 묶어 놓았기에 해제한단 말인가.
삼계삼세가 모두 인연의 그림자로다.
그림자를 쫓으면 무인 것이요,
그림자 본래 없음을 간파하면 해제한 것이니,
오늘 모인 대중들 해제하려면 삼동안거(三冬安거)의 자취 흔적을 싹 쓸어버려라.
그런 연후에 환한 대낮에 대로행(大路行) 할지 나라.



혹명심역혹명성(或名心亦或名性)
심성원래시연영(心性元來是緣影)
악인어차즉무의(若人於此即無疑)
자기영광상경경(自己靈光常罔罔)

쇠소가 산문밖 나서니

혜초 스님(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담화일타재봉춘(曇華一朶再逢春)
우담바라 한 그루가 다시 봄을 만났는데,
산승부해수갑자(山僧不解數甲子)
산에 사는 이 증은 세월 가는 줄 몰랐구나.



무각철우출소굴(無角鐵牛出巢窟)
뿔 없는 쇠소가 산문 밖을 나섰으니,
형곡황야종공덕(窮嶽荒野種功德)
가시밭 거친 세상 교화공덕 지으시오.

청산불동백운류(靑山不動白雲流)
청산은 잠잠하고 백운은 흘러가는데,
족하계승최세월(足下溪聲催歲月)
발아래 시냇물소리 세월을 재촉하구나.

“태고종사’ 관련 화해한 적 없다”

지관 스님, 본지 기사 ‘사실과 다르다’ 지적

조계종은, 태고종의 <태고종사> 발간과 관련해 본지 564호 2면(2월 8일자) 기사에 게재된 내용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그런 목적이 라면 이해하겠고 어쨌든 앞으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2월 10일 총무원장 집견실에서 위영만 본지편집국장 등과 만나 해당기사가 당사자 확인없이 쓰여진 점을 지적하고 “운산 총무원장 스님이 새해 인사차 경국사를 찾아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태고종사> 발간은 조계종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며 “이에 대해 아직 책을 읽어본 상태도 아니고 또 이 자리가 그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므로 지금 뭐라 얘기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태고종사>에는 청담 스님 등 조계종 선지식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내용들이 많아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종단 차원에서 검토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근현대 수좌들 안거기록 ‘생생’

조계종 교육원 ‘근대선원 방함록’ 출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2월 6일 근현대 선원 수좌들의 안거 기록을 담은 <근대 선원 방함록>을 출간했다. 방함록은 선원의 안거 수행 기록을 일컫는 말로, 안거 년도와 선원, 법호, 법명, 나이, 출가 본사 등이 수록돼 있다.

이번 방함록은 1899년 동안거부터 1967년 하안거까지 해인사 퇴설 선원(1899년 동안거-), 수덕사 능인 선원(1910년 동안거-), 경성암선원(1927년 동안거-), 법어사 금어선원(1909년 하안거-), 적지사 천불선원(1940년 하안거-), 도리사 태조선원(1930년 동안거-) 등 총 6개 선원의 방함록을 모은 것이다.

<근대선원 방함록>에 수록된 스님은 약 1만여명으로 1940년대에는 재가자도 다수 결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계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선종, 선사상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 연구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근현대 불교 및 선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함록의 의미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국제사이트 오픈

‘간화선’ 등 다양한 콘텐츠

조계종 포교원이 전 세계에 한국 불교와 간화선 수행법 위상을 높이고 종단차원의 해외포교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국제사이트(www.koreanbuddhism.net)를 2월 7일 오픈했다.

국제사이트에는 수행법 해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행지도를 위해 외국인들이 원어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사찰 및 선원 정보제공과 온라인상의 수행단도도 실시된다. 이 밖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 26명의 행장과 법어 및 법문 등 선수행의 진수를 보여준다. **남동우 기자**

유진룡 문공부 차관

지관 스님 예방

신임 유진룡(사진) 문화관광부 차관이 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충효사상을 권장하고 도심 사찰을 종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지관스님 방문 신년인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이 2월 10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신년 인사를 올렸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올해도 비구니회가 종단의 발전을 위해 수행과 포교 현장에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수현, 총무부장 윤달, 재무부장 명수, 사회부장 광욱, 교무부장 일범 스님 등이 배석했다. **글·사진=조용수 기자**

강제 징용자유골 환송 불교계 적극 나선다

일제하 강제징용자 유골송환문제에 불교계가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정 부 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전기호 위원장은 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일본에 보관돼 있는 한인 유골 반환에 불교계가 적

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조만간 종단협의회를 통해 불교계의 역할을 논의 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하고 “징용 한인들은 일제가 강제로 끌고 간 사람이다. 당연히 일본 정부가 나서서 유골의 반환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마쳐야 할 숙제다.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담당하게 대일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ho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불광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광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가한 불교전문교육기관입니다. 2004년에는 조계종에서 선정한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교리와 실행학습을 통하여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불광불교대학(2년제)

1. 교과과정 (2년제 4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근본불교, 불교 경전과 신앙 불교문화, 바라밀수행법	대승불교, 정도와 밀교 불광운동, 계율(범망경)
2학년	금강경, 포교 및 사회복지 불교사, 비교종교론	선불교, 보현행원품 불교상담, 불교음악

2. 모집 부문

- ▶ 아침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 저녁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 일요일반: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3시

3. 관련사항

- ▶ 지원자격: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불교기본교육 수료자
- ▶ 등록금: 학기당 20만원
- ▶ 특 전: 조계종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불광법회 명교사 자격 부여



일 정

- ▶ 모집기간: 2006. 1. 1 - 2006. 2. 19
- ▶ 합격자 발표: 2006. 2. 20 (서류전형을 통하여 인터넷 발표)
- ▶ 등록기간: 2006. 2. 20 - 2006. 2. 28
- ▶ 입학식: 2006년 3월 5일

● 불광사 불교대학원(2년제)

1. 교과과정 (2년제 4학기)

불교 내전	1학기: 반야사상·유식사상 3학기: 능엄경·선어록강독	2학기: 법화사상·화엄사상 4학기: 정토경전·초기불교
응용 불교	불교근현대사, 비교종교론, 과학과 불교, 불교와 생태윤리 등	

2. 모집 부문

- ▶ 아침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 ▶ 저녁반: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3. 관련사항

- ▶ 지원자격: 불교대학 졸업자·조계종 포교사
- ▶ 등록금: 학기당 25만원
- ▶ 특 전: 불광법회 전문포교사 자격 부여